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 이**

묵 도 ·····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송가 490장

찬 송 **다 같 이**

1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성 시 교 독 ····· **새 해** ····· **다 같 이**

인도자 :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회 중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도자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회 중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도자 :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회 중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도자 :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회 중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자 :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같이 :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 도 ·····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창세기 28:16~19** ····· **인 도 자**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말 씀 ····· **'하나님의 집'** ····· **인 도 자**

'벧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지명 중 하나입니다. '벧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기억할 것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독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급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야곱은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협과 자신을 지켜줄 안식처가 없다는 절망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을 '벧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을 때는 그곳이 절망의 땅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본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그 곳에 기름을 붓고 그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이 너무나 귀해서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에 비슷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벧엘과 같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들은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을 승리의 확신으로 변화시켜줍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올 한해는 상황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 **인 도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귀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다 같 이**

찬송가 220장

1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선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 하세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설(구정)감사예배 지침

정월 초하루인 설은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드린 후에 떡국(歲饌)을 먹는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

- 지침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2019년

설(구정) 감사

가족 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